



금감원,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발표

최원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전년대비 16.3% 증가한 143조 3,937억 원을 기록함.

-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대비 24.8% 증가한 12조 9,018억 원을 기록함.
- 회사채발행 규모는 일반회사채의 발행 증가로 역대 최고치인 전년대비 15.6% 증가한 130조 4,919억 원을 기록함.

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
- 2009년에는 금융위기 직후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유상증자(127.8%)와 일반회사채(71.8%) 발행을 확대함.
- 2010년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기업공개(257.1%)와 금융채(52.6%)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함.
- 2011년에는 기업들이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(73.4%)와 일반회사채(35.0%) 발행을 확대함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A등급 이상 우량 일반회사채 발행 비중이 증가 추세를 나타냄.

- 2011년 A등급 이상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56조 7,011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의 92.1%를 차지함.
- 'BBB'등급 이하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조 8,466억 원 (7.9%)을 기록함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'AA-'등급 일반회사채 수익률은 2008년 말 8.9%까지 상승하였으나,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0년부터 4%대를 유지하고 있음.

● 단, 'BBB-'등급 일반회사채 수익률은 2008년 말 12.5%까지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2011년 말 기준 10.0%를 기록함.

■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2009년 9.0%, 2010년 6.7%, 2011년 3.3%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●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비중은 2009년 32.6%에서 2011년 7.8%로 하락하였으며, 중소기업의 일반회사채 발행 비중은 2009년 1.7%에서 2011년 1.1%로 하락함.

(2011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금액, 금감원, 1/25)